

# 군산 인도교 설치공사 11월 첫삽

### 사업비 270억원 확보 2022년 완공 목표 말도~명도~방축도 구간 천혜비경 만끽

군산시는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공사를 발주한다고 밝혔다.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공사는 고군산군도 끝자락에 나란히 놓인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3개의 유인도서 말도, 명도, 방축도와 유인도서 사이에 위치한 2개의 무인도서인 보농도, 광대섬까지 5개(말도~보

농도~명도~광대섬~방축도)의 섬을 순수 인도교로만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270억원(국비 216, 도비 27, 시비 27)을 확보하여 2022년 공사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총 4개소에서 진행되는 이번 인도교 설치의 제1교 말도~보농도

308m, 제2교 보농도~명도 410m, 제3교 명도~광대섬 477m, 제4교 광대섬~방축도 83m 등 총 연장 1.278km로 설계되었으며, 오는 11월 중 공사 착공될 예정이다. 시에서는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이곳에 인도교가 설치되면 도서주민과 인도교를 연계하여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이어지는 14km의 길을 걸으며 힐링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명품 트래킹코스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30억원의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2

억5천만원을 반영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인도교와 트래킹코스가 완공되는 2022년이 되면 군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으로 고군산군도가 군산시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명소로 거듭나 관광활성화는 물론,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외도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군산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국내 복귀기업 유치 잔결음

### 중국 청도 방문단, 주얼리기업과 간담회서 지원책 제시

익산시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중국진출기업과 관계 증진과 기업 유치를 위해 중국 청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문화산업국장 등 시정 관계자 3명, 민간유치단장,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등 익산시 관계자 5명과 중국에 출장 중인 산업부 및 코트라 직원 각 1명씩이 합류하여 총 7명이 동행했다. 방문단은 해당 기간에 중국진출 주얼리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를 방문했다. 28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10여개 주얼리기업 관계자들이 방문단을 환영하고 그간 국내복귀를 위한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기업들은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완화 등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요구, 초기투자비용 부담에

대한 아파트형공장 임대지원, 도급장 및 인력지원, R&D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에 익산시에서는 국내복귀기업 지원책 및 세제혜택과 더불어 익산시의 투자지원책을 설명하고, 기존 익산에 구축된 인프라를 더욱 다듬고 보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익산으로 복귀시 안정된 기업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기업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이를 반영한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시 관계자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완 작업해 해외진출기업들이 다시 익산으로 국내복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초가을 낭만의 레이스 펼쳐진다"

### 내달 21일 군산·서천시 자전거 대행진 팡파르

군산시는 서천군과 자전거 대행진 화합행사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0월 21일에 '군산 서천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한다. 양 시·군에 위치해 있는 '금강자전거길'에서 진행되는 이번 자전거 대행진은 군산 철새조망대 건너편 행사장에서 웅포대교까지 왕복 47km 거리의 동호인 코스와 행사장에서 출발해 원나포 공주산까지 왕복 22km 거리의 일반인 코스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날 행사는 나포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풍물놀이, 서천군립예술단의 문화예술 공연 등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기념식, 자전거 퍼레이드 순으로 진행되며, 행사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간식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전거 대행진의 참가대상에 지역 제한은 없으며 행사 참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건설과(063-454-3632)나 서천군 자치행정과(041-950-4747)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러시아 의료시장 진출 발판

### 원광대병원, 우호협력 MOU 의료정보·인적 교류 추진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선도

원광대학교병원이 러시아 권역 제1병원 (Regional Clinical Hospital No. 1)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다지고 우호 협력관계를 갖고자 MOU(업무협약) 체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한국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7 한-러 보건의료협력 연구 사업'을 최근 수행한 바 임상사업과 연계해 한-러 보건의료협력 방문교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성사됐다. 양 병원은 MOU를 통해 의학, 교육, 연구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의료

정보 및 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비뇨기과에서 연수받은 Stanislav Volkov(스타니슬라브 볼코브)의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마취통증의학과 이철교수와 비뇨기과 오대훈교수가 의료지식 전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러시아 권역 제1병원 (Regional Clinical Hospital No. 1)의료진과 연구원들의 활발한 연수교류는 물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강의, 연구, 세미나 개최에도 증진 시켜 나가기로 했다. 최두영 원광대병원장은 "본원은 외국 의료기관들과의 각종 협력 관계를 통하여 해외 의료 진출과 한국의 선진 의료 전수에 앞장 서 왔으며, 이번 한-러 연수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의 해외 의료 진출 사업들에 대하



원광대학교병원이 러시아 권역 제1병원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다지고 우호 협력관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 적극 참여하여 한국 의료의 글로벌화에 첨병 역할을 다 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특히 원광대병원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건강보험 통합예약 플랫폼 구축사업, 보건의료 T2B 기반 구축 사업, 2016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사업 총괄 주관 병원, 2016 의료 해외 진출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 시행된 각종 국가 의료 정책 사업 및 프로젝트들에 적극 동참해 왔다. /익산=장영원 기자

# 익산시 재난안전특교세 13억원 확보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방범용CCTV 설치사업 5억 ▲유원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5억 ▲함라면 입남저수지 용수펌프시설 설치공사 3억원이다. 방범용CCTV설치 사업은 익산이 도농복합도시로 도심범죄와 농촌마을의 농작물 도난 등 각종범죄가 다수 발생되어 방범용 CCTV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원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은 토사 퇴

적 등으로 집중호우 시 범람 주변 침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하천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국비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및 재산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라면 입남저수지 용수펌프시설 설치공사는 입남저수지 상류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장기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율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우리 익산 주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군산해경, 안전 수상레저문화 확산 앞장

### 안전리더 위촉 첫 회의 진행

안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해경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레저 활동과 관련한 온라인 카페 운영자를 안전리더로 위촉해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28일 군산해경경찰서는 "수상레저 사고방지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레저 활동과 관련이 있는 동호회, 온라인 카페 운영자, SNS 사용자들 '수상레저안전 선도그룹 안전리더'로 위

촉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안전리더는 전북도 바다에서 레저보트 수상오토바이 동호회를 운영하거나 많은 회원수를 보유한 블로거, 온라인 카페 운영자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양경찰과 함께 수상레저 안전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군산해경에 위촉된 안전리더는 모두 10명으로 레저보트 동호회 '군산보팅클럽' 정용도(48) 회장과 회원수 2,700명을 보유한 한국레저보트 피플 이종택(58) 운영자 등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ARS 1577-8179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